

# 국내 동남아시아계 유학생들이 인식하는 문제와 대응기제 방법: 사회적 지지 네트워크와 임파워먼트 중심으로\*

장안리\*\*

## | 목 차 |

I. 서론	IV. 연구 결과
II. 선행 연구	V. 논의
III. 연구 방법	VI. 결론 및 제안

## | 논문요약 |

한국은 OECD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유학생의 수가 다른 OECD국에 비해 낮은 편이다. 한국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더 많은 유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현재 한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학생들이 문제라고 인식하는 부분들을 파악하고 만족스러운 유학생생활에 필요한 요소들이 무엇인지 심층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에서 온 14명의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에서 유학생생활을 하면서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떠한 대응기제 방법을 선택하는지 또한 대응기제 방법이 사회적 지지 네트워크 및 임파워먼트와 관련성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참여자들은 한국 유학생생활을 진퇴양란의 연속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주로 소극적 저항 대응기제 방법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자신의 문제를 사회의 큰 틀 안에서 인식할 때 임파워되었고 임파워되는 과정에서 사회적 지지 네트워크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 주최국의 호의적인 태도(배려와 격려 등)가 한국생활에 잘 적응하고자 하는 동기부여로 작용하는 것으로

\* 이 논문은 2016학년도 홍익대학교 학술연구진흥비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 홍익대학교 광고홍보학부 조교수.

로 나타났으며 한국에 대해 더욱 우호적인 태도를 갖도록 하였다.

동남아시아 국가의 유학생들은 증가하고 있는 현재 학생들의 유학생생활 만족도를 높이고 한국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하기 위해 적극적인 사회적 지지 네트워크 연계와 더욱 호의적인 태도를 제안한다.

- 주제어: 동남아시아권 유학생, 대응기제 방법, 사회적 지지 네트워크, 임파워먼트, 유학 만족도

## I. 서론

현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수는 200만여 명이다(법무부 2017). 이 중 대다수는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이주여성이지만 외국인 유학생들도 그중 적지 않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어학연수, 학부, 대학원 등 여러 가지 교육과정을 밟기 위해 국내로 들어온 유학생들은 한국에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국내에 다양한 문화에 대하여 소개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으며 이들이 학업을 마친 후 모국으로 돌아갈 경우 한국을 알리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때문에 이들이 국내에 거주하면서 만족스러운 유학생생활을 하고 그 과정에서 한국 사회 및 문화에 대하여 긍정적인 인식을 갖도록 하는 데 더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2001년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종합 방안’에서 2009년 40,000 명의 유학생 유치 목표를 발표한 바 있다. 이 목표는 2009년 외국인 유학생의 수가 76만 명 이상되면서 초과달성하고, 자비유학생들도 2008년 대비 2009년에는 약 만 명 가까이 증가한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의 유학생 유입 수치를 살펴보면 2011년까지 증가 추세를 보이다 2012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5년에 와서 다시 증가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증가 추세를 보일지는 미지수이다. 2015년 교육부는 국무회의에서 2012년부터 2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한 유학생 수치에 착안하여 국제화교육 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정책을 제안하고 2023년에는 20만 명의 유

학생을 확대 유치하겠다고 밝혔다.<sup>1)</sup> 전 세계가 고등교육 서비스 산업 확대 및 인재 유치 차원에서 유학생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국내에도 국제유학시장 점유율 상승을 위한 시기적절한 전략을 수립하고 시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부의 새로운 정책에 발맞춰 근래 유학생 수가 다소 하락한 원인을 파악하고 새로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현재 한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학생들의 어려움 및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이들의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안에 착안하여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아시아권에서 온 유학생들이 한국에 거주하면서 겪는 문화적응의 스트레스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들의 문제 대응기제 방법을 알아보려 한다. 아울러 아시아권 유학생들의 사회적 지지 네트워크와 임파워먼트가 이들의 유학생 생활 적응 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보고, 이 두 요소가 유학생들의 대응기제 방법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II. 선행 연구

### 1. 국내 유학생들의 현황 및 유학생들이 겪는 어려움

2010년 현재 한국교육개발원 통계에 의하면 국내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의 수는 총 91,332명이며 이는 2003년 12,314명에 비해 약 7배 정도 증가한 수치이다. 이 중 아시아 지역 유학생들은 79,257명으로 지역별로 비교하였을 때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표 1> 참조).<sup>2)</sup> 2015년 기준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아시아 지역 유학생들 중 중국 학생들은 54,214명으로 다른 국가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수가 유입되고 있는 추세이며 이는 유학생 총수의 약 60%에 달한다. 중국 다음으로 일본학생들이 3,492

1) 교육부, “2015년 국내 외국인 유학생 현황 정보공개,” <http://www.moe.go.kr/web/100088/ko/board/view.do?bbsId=350&encodeYn=N&pageSize=10&currentPage=0&boardSeq=60923&mode=view>. (2016년 6월 21일 검색)

2) 위의 자료 참고. 현재 교육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유학생 수는 2015년에 발표한 2010년까지의 통계가 가장 최근 자료이다.

명으로 3.8%를 차지하고 있으며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의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도 많은 수의 유학생들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표 2 참조>).

<표 1> 2015년 국내 외국인 유학생 유치 현황

	지역	합계	비율
1	아시아	79,257	86.8%
2	아프리카	2,005	2.2%
3	오세아니아	386	0.4%
4	북미	4,113	4.5%
5	남미	863	0.9%
6	유럽	4,708	5.2%
	합계	91,332	100%

<표 2> 2015년 국내 동남아 국가 유학생 수<sup>3)</sup>

	동남아 국가 현황	어학 연수	대학	석사	박사	기타 연수	합계	비율(아시아 지역 총수)
1	베트남	1,715	898	968	713	157	4,451	5.6%
2	인도네시아	156	356	334	153	176	1,175	1.5%
3	말레이시아	240	446	84	50	171	991	1.3%
4	필리핀	92	89	350	110	112	653	0.8%
5	태국	160	83	107	55	59	464	0.6%
	아시아 지역 합계	19,961	30,584	13,775	5,549	9,388	<b>79,257</b>	-

근래 몇 년간의 유학생 유입 수치를 살펴보면 2011년까지 증가 추세를 보이다 2012년 이후 2014년도까지 다소 감소 추세를 보이며 2015년에 와서 다시 증가하고 있다(<표 3> 참조).

3) 위의 자료 참고.

<표 3> 2009-2015년 국내 유학생 수 및 국내 수입액<sup>4)</sup>

연도	국내 외국인 유학생 (대학 학위 +연수, 명)	국내 수입액 (백만 달러)
2009	75,850	36.3
2010	83,842	37.4
2011	89,537	128.3
2012	86,878	71.8
2013	85,923	104.0
2014	84,891	123.9
2015	91,332	108.2

국내 대학생 대비 유학생 비율을 살펴보면 한국은 약 2%로 18%인 뉴질랜드, 17%인 영국, 4%인 미국 등에 비해 매우 저조하다고 할 수 있다. OECD 평균 국내 대학생 대비 유학생 비율이 약 8%인 것에 비해 한국은 매우 낮은 편으로 국제유학시장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유학수지 적자, 학령인구 급감, 생산가능 인구 감소 추세를 고려할 때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우수 유학생 유치 노력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sup>5)</sup> 이에 2015년 교육부는 2023년에 최대 20만 명의 유학생들을 확대 유치하기 위해 1) 대학의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강화, 2) 우수 지방대 유학생 유치 활성화, 3) 유학생 유치 지원 및 기반 구축의 3대 정책 과제 중심의 ‘유학생 유치 확대 방안’을 수립하였다. 본 연구와 관련된 첫 번째 전략(대학의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강화)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우선 “외국인 및 재외동포 유학생에 특화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유학 목적별·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해 한국 유학 매력도를 제고하고, 둘째, 국내로 이미 유입된 한국어 과정 어학연수생 등을 정규 혹은 비학위 과정의 유학생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제안하였다. 셋째, 우수 유학생들의 취업 지원과 동문조직 지원을 통해 친한 인사를 양성하

4) <표 3>은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여 저자가 재구성하였음. 교육부, “국내 외국인 유학생 통계(교육기본통계 승인번호-33401),”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34](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34) (2016년 6월 8일 검색)

5) 교육부, “2015년 국내 외국인 유학생 현황 정보공개,” 앞의 사이트.

고 향후 지속적인 유학생 유치 기반을 마련하며, 마지막으로 교육부는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대학이 외국대학과 합작하여 재외동포 및 예비 대학생 대상 한국어 교육과 유학 정보 제공을 확대하도록 지원한다”<sup>6)</sup>는 목표를 수립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목표에 발맞추어 앞으로 더 많은 유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유학생들이 생각하는 국내 유학 환경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이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또한 어떠한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적극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

기존의 연구에 의하면 유학생들은 크게 생활과 학업,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생활 영역에서는 가장 일반적으로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경험하며(이승중 1995) 그 외에 언어 문제, 학비 및 기타 재정 문제, 사회적응 문제, 고국에 대한 향수, 일상에서의 일과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 등(Mallinckrodt & Leong 1992)이 있다. 학업적인 면에서는 강의 내용의 이해 부족, 연구 수행과 발표 능력의 부족으로 인한 학업성취도 저하(공영태 2005), 사회적 관계 형성의 어려움(황혜연 2007; Wang 2004)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학생들이 겪는 이러한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주최국 학교에서는 여러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가령 유학생들의 빠른 적응을 위해서 미국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으며 초기 유학 기간의 스트레스가 학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에 스트레스 해소법 및 예상될 수 있는 스트레스를 소개하고 있다(Misra et al. 2003).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대응 방법에 있어서는 학업 계획을 첫 학기에 세우고 학업과 관련하여 염려하는 부분을 초기에 대응하는 방법이 학업 성취와 적응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Poyrazli & Grahame 2007). 또한 교수와 더 많은 시간을 가지면서 교제

6) 교육부, “유학생 유치 확대 방안’ 발표(2016년 7월 7일 보도자료),” [http://www.google.co.kr/url?sa=t&rct=j&q=&esrc=s&source=web&cd=1&ved=0ahUKEwiK37DK49bOAhUENJQKH7CCOAFggMAA&url=http%3A%2F%2Fwww.index.go.kr%2Fcom%2Fcmn%2Ffms%2FfileDown.do%3Fapnd\\_file\\_id%3D1534%26apnd\\_file\\_seq%3D14&usq=AFQjCNEL1B4xHx3-abSQnLE6ymI4VpLdtg&sig2=E9beOJ2kXsmqNC\\_LivFxNA&bvm=bv.129759880,d.dGo.](http://www.google.co.kr/url?sa=t&rct=j&q=&esrc=s&source=web&cd=1&ved=0ahUKEwiK37DK49bOAhUENJQKH7CCOAFggMAA&url=http%3A%2F%2Fwww.index.go.kr%2Fcom%2Fcmn%2Ffms%2FfileDown.do%3Fapnd_file_id%3D1534%26apnd_file_seq%3D14&usq=AFQjCNEL1B4xHx3-abSQnLE6ymI4VpLdtg&sig2=E9beOJ2kXsmqNC_LivFxNA&bvm=bv.129759880,d.dGo.) (2016년 8월 9일 검색)

를 하는 것이 학생들의 학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교수의 타 문화에 대한 관심, 타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 등이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Charles & Stewart 1991).

유학생 출신 국가의 문화 또한 유학생의 주최국 적응 과정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유학생의 출신 국가와 주최국이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국가일 경우, 즉 문화적 성향이 동일할 경우 유학생들이 주류문화에 더 잘 적응하며 그렇지 않은 유학생들은 주최국에 상대적으로 사회적 거리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Swagler & Ellis 2003; Triandis 1994). 또한 유학생들이 주최국에서의 차별을 경험할 경우 자신과 비슷한 유학생들과 강한 유대감을 형성하여 자신을 그들과 더 동일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개발도상국에서 온 학생일수록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주최국과 더 문화적 분리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urdam & Collins 1984). 아울러 주최국의 태도 혹은 관심과 무관하게 유학생들의 자신감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다는 생각(efficacy) 등이 개인의 스트레스 지수를 낮추며 새로운 문화권에서 더 빠른 적응을 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Hechanova-Alampay et al. 2002).

국내의 유학생들과 관련된 연구는 유학생 유치 역사가 짧은 관계로 양적인 측면이나 다양성 측면에서 다소 제한적인 편이다. 또한 중국 유학생들이 가장 많은 관계로 대부분의 연구는 중국 학생들과 관련된 연구라는 특징이 있다. 장혁심(2005)은 중국인 유학생들의 사회적 지지와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련된 연구에서 중국 유학생들이 예상과는 다르게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고 있으며 가장 큰 스트레스는 경제적인 어려움이라고 하였으며 김귀성과 황지인(2009)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연구에서는 중국 학생들의 경우 스트레스가 적을수록 재학생화에 잘 적응한다고 밝혔다. 이익수(2009)의 연구에서는 문화적응 정도가 학습동기 및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재까지 중국인 유학생 이외에 다른 국가에서 온 유학생들의 연구는 비교적 적었으며 중국이 아닌 다른 국가 출신의 유학생들이 한국 사회에서 적응해 나가면서 주로 어떤 문제에 직면하는지 또한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 나가는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 또한 집단주의 문화권의 국가에서 유학

을 온 학생일 경우 문화적응의 속도 및 직면하는 문제가 그렇지 않은 학생들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연구도 부족한 상황이다.

## 2. 대응기제 방법

외국인이 새로운 문화권에 적응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라고 여겨지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개인은 여러 가지 전략을 사용한다. 기존의 스트레스와 적응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이러한 해소 방법을 대응기제법(coping mechanism)이라고 하는데, 라자러스와 포크먼은(Lazarus & Folkman 1984)은 주로 문제 중심적, 감정 중심적인 두 가지 대응기제 방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문제 중심적인(Problem-focused) 방법은 문제를 바꾸거나 해결하는 방법이고, 감정 중심적인(emotion-focused) 방법은 문제와 관련된 감정을 바꾸는 방법을 가리킨다. 엔드러와 파커(Endler & Parker 1990)는 여기에 회피 대응법(avoidance-oriented coping)을 추가하였으며, 이는 현재 직면한 문제에 대응하기보다는 다른 일을 찾아서 한다든지(시험공부를 하기보다는 TV 시청을 한다는 등) 스트레스를 주는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사람을 만나는 행동(사회적 지지를 위함) 등을 가리킨다.

디에즈 구레로(Diaz-Guerrero, 1979)는 대응기제 방법을 소극적, 적극적 적응 형태로 유형화하였다. 적극적 적응은 상황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유형이며 라자러스와 포크먼이 제시한 문제 중심적 대응기제법과 유사하다. 하지만 해당 문제가 주최국의 문화와 관련되어 있으며 문제 해결에 주최국의 관심도가 낮을 경우 이 유형은 성공하기 어렵다. 반면 소극적 적응은 자신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유형이며 이 방법은 문화적응에 있어 문화융합(assimilation acculturation strategy) 유형과 유사하다. 소극적 적응 방법 또한 주류 혹은 주최국이 적응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그들을 받아들일 의사가 있을 때 더 효과적이다. 만약 주최국 측이 외부사람들에 대하여 부정적 혹은 적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을 경우 소극적 적응 유형을 선택한 외국인들은 고립될 수 있다(Berry et al. 1987).



### 3. 사회적 지지 네트워크

사회적 네트워크 혹은 사회연결망은 일종의 사회자원으로서 삶의 조건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창출한다(Van der Gaag & Snijders 2004; Lancee 2010). 개인의 사회적 네트워크는 가장 친밀한 가족관계부터 시작하여 친구, 친척 등 중간 수준으로, 공동체와 같은 외부층으로 확장된다(Lin & Ensel 1999). 사회적 네트워크가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네트워크를 통하여 사회적 자본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포테스는 사회적 자본을 “연결망에 포함된 덕택으로 희소자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된 개인의 능력”이라고 표현했으며(Portes 1995, 12) 반 더 개그와 스니저스는 사회적 자본을 “사회연결망 구성원들이 소유한 자원의 집합으로, 사회적 관계의 역사적 결과로써 개인들이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하였다(Van der Gaag & Snijders 2004, 200).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 개인이 얻게 되는 사회적 자본은 구체적으로 정서적 안정, 물질적 지원, 정보 등의 형태로 제공 및 사용된다.

이민자와 관련된 사회적 네트워크 연구는 그들의 결속적 연계, 즉 친족이나 인종 공동체가 새로 이주한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춰 왔으며(Portes 1998; Ryan 2007), 특히 같은 문화적 배경을 공유하고 있는 이민자들 간에 형성된 강한 연계가 자본으로 기능한다는 점은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 있다(Portes 1998; Sanders et al. 2002). 이러한 네트워크는 이민자들이 주취국에서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스트레스를 낮추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Cohen & Syme 1985; Furnham & Bochner 1986).

유학생들의 경우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한 사회적 지지가 약하거나 없는 학생들은 학업성과 저하 및 우울, 혼란, 긴장 등의 심리적 경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으며(Hovey 2000; Pederson 1991)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같은 국가 출신의 유학생들과 만날 수 있도록 연결을 시켜준다든지(Prieto 1995) 다른 유학생들 및 교수들과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Abe et al. 1998) 등 개인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확대시키는 방법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4. 임파워먼트

임파워먼트는 자신감을 가지고 스스로 자신의 일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무엇인가를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키는 개념으로(Thomas & Velthouse 1990) 교육, 사회복지실천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 사회복지실천에서는 클라이언트들의, 교육에서는 학생들의 문제가 파워가 없음에서 온다고 보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개인이 파워를 획득해야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파워 획득이 그 목적이다. 여기서 파워를 획득한다는 것은 개인이 자신의 환경에 효과적이고 창조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서,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참여하는 선택권을 갖는다는 의미가 있다(Cohen 1998). 즉 정치적 요소와 비판적 자각, 참여적 행동 등의 요소가 포함될 때 진정한 임파워먼트가 일어난다고 하는데, 이는 자신의 문제가 구조적 불평등과 억압과 연결되어 있다는 비판적 사고를 하는 것을 뜻한다(Zimmerman 1995). 파워 획득은 개인이 긍정적인 자아 개념, 자원, 정보, 지지 등을 학습함으로써 증진된다고 알려져 있으며(Chally 1992), 이때 파워는 반드시 실질적인 사회적 지위나 공식적인 권한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Zimmerman 1995).

사회복지실천에서는 주로 클라이언트에게 스스로에게 힘을 부여함으로써 주체적인 삶을 가능하게 하도록 하는 데 이 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며, 근래에 와서는 사회적 지지가 임파워먼트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황령희 2002). 김미옥(2005) 연구에서는 장애인의 경우 가족 및 이웃의 지지가 높을수록 임파워먼트의 수준이 더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파워먼트와 사회적 지지의 관련성은 이주민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정임(2008)의 연구에서는 이주여성의 임파워먼트 중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는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파워먼트 중 낙관적 시각과 사회적 지지 또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에서는 동남아시아에서 온 유학생들이 한국에서 겪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이들의 대응기제 방법이 무엇이며 사회적 지지 네트워크와 임파워먼트가 대응기제 방법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위에서 살펴본 선행 연구를 다시 정리하자면 사회적 지지 네트워크는 개인이 임파워될 수 있는 힘을 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상관관계는 비단 사회복지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클라이언트뿐만 아니라 결혼이주여성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내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 유학생들의 경우에도 사회의 약자로서 결혼이주여성들과 유사한 사회적 위치에 놓여 있다고 판단되어 사회적 지지 네트워크가 이들에게도 파워 획득의 수단으로 사용이 되는지 살펴보고, 사회적 지지 네트워크 및 파워 획득 과정이 대응기제 방법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5. 연구 문제

본 연구에서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를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위의 3국가는 한국에 유학생을 가장 많이 보낸 동남아 국가들이며(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순, <표 2> 참고), 둘째, 기존 연구에 의하면 출신 국가의 집단 혹은 개인주의 성향과 주최국의 성향과 일치할 경우 주류문화에 더 잘 적응한다는 결과가 있다(Swagler & Ellis 2003; Triandis 1994). 하지만 이러한 연구는 개인주의 국가 출신의 유학생이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국가에 유학할 경우 그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관계가 집단주의일 경우에도 성립이 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집단주의 국가를 선정하였다. 마지막으로, 현재 한국에 동남아 국가에서 결혼이주여성 및 노동자들이 다수 유입이 되어 있어 동남아시아권 사람들에 대한 내국인들의 인식이 유학생들을 바라보고 관계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여부도 살펴보고자 하여 중국, 일본, 몽골이 아닌 동남아시아권에서 온 유학생들을 선정하였다. 한국은 오랫동안 단일민족으로 유지되어 왔기 때문에 타 문화에 대한 이해와 수용도가 낮고(김규원 1995), 그로 인해 아직 우리 사회는 외국인에 대한 배려나 조력 체제가 불충분한 상황이다(이승종 1995). 또한 199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많은 수의 결혼이주여성들과 노동자들이 베트남, 필리핀, 중국 등 아시아권에서 유입이 되면서 언론 등을 통하여 내국인들의 외국인을 바라보는 시선, 고정관념, 사회적 거리감, 편견 등이 온정주의(임양준 2012) 혹은 타자화(채영길

2010)로 나타났고, 이러한 부정적인 시선은 외국인 유학생들에게도 그 영향이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의 유학생과 관련된 연구의 주최국이 대부분 미국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미국은 한국과 다르게 개인주의 국가 이면서 타 문화에 대한 이해와 수용성이 높은 국가라고 할 수 있다.) 국내의 유학생들이 결혼이주여성들과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의 영향으로 피해를 볼 수도 있는 대상이다.

아울러, 동남아시아에서도 필리핀, 태국 등에서 온 학생들은 그 수가 적으며 너무 많은 국가가 선정될 경우 대응기제 방법을 이해하고 이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데 변수가 많을 것을 예상하여 국내에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베트남,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를 선정하였다. 이에 본 연구의 목표는 위 3개국에서 온 유학생들이 한국에서 유학생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스트레스 요인을 찾고 그들이 직면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어떠한 대응기제법을 사용하며 사회적 지지 네트워크와 임파워먼트가 대응기제법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데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 사회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아시아권의 유학생들에게 만족스러운 유학생생활을 제공하고 학생들이 유학 기간 동안 겪을 수 있는 한국의 사회적, 문화적인 요인에 기인한 문제들을 잘 이해하고 극복하는 데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본다. 본 연구의 연구 질문은 아래와 같다.

RQ1.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유학생들이 유학생생활을 하면서 직면하는 문제는 무엇이며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는가?

RQ2.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유학생들은 자신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대응기제 방법을 사용하는가?

RQ3.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유학생들이 대응기제 방법을 선택하는 데 사회적 지지 네트워크와 임파워먼트는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

### Ⅲ. 연구 방법

본 연구는 기존에 연구가 되어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귀납법으로 현

상을 탐색하는 질적 방법을 선택하였다. 질적 방법은 일상에서 실현되는 복잡한 사회현상에 관심을 갖고 연구 대상자들이 사회현상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는지 알고자 하는 학자들에게 적합한 방법론이다(Marshall & Rossman 1995, 2). 학자들은 연구 대상자들의 일상에 스며들어 있는 복잡성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상황, 사람들, 상호작용, 사건, 행동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얻을 수 있다(Patton 1980, 22). 본 연구는 심층 인터뷰를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심층 인터뷰는 깊이 있고 개방성 묘사를 얻는데 적합하며(Patton 1987), 면접자가 인터뷰를 진행하며 대화를 이끌지만 피면접자가 어떻게 대답을 구성하고 프레임을 형성하는지 존중해 준다(Marshall & Rossman 1999, 82). 따라서 심층 인터뷰의 가장 큰 장점은 연구 대상자의 경험을 깊이 있고 폭넓게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연구 대상자들은 의도적 표집 방법을 사용하여 섭외하였다. 2015년 7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서울에 있는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대학생, 대학원생 14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심층 인터뷰 및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처음 섭외는 개인 연락처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학생들의 소개를 통해 눈덩이표집 방법이 사용되었다.

학생들의 나이는 25-32세로 이루어졌고 출신국가는 동남아시아권(인도네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이었다. 자신의 문제를 파악하고 한국 사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인터뷰 대상자의 자격 요건을 한국에 거주한 지 1년 이상이 된 학생들로 제한시켰다. 따라서 모든 학생들은 한국에 거주한 지 1년 이상이 되었으며 가장 오래 거주한 학생은 한국 거주 6년차 학생이었다. 심층 인터뷰는 60-130분 정도 소모되었고 평균 80분이었으며, 모든 인터뷰는 반구조적인 개방식 질문으로 진행되었다. 인터뷰는 대상자의 사전 동의 후 녹음되었으며 학생들의 선호에 따라 한국어 혹은 영어로 진행된 후 전사되었다. 영어로 진행된 인터뷰는 영어로 전사된 후 논문에서 대상자의 말을 인용할 때는 한국어로 의역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근거이론 방법은 글라서와 스트라우스(Glaser & Strauss 1967)에 의해 개발되고 발전되었다. 근거이론 방법은 자료를 사용하여 사회현상을 설명하고 이론화하는 데 적합한 방법이며, 분석하고 해

석하는 데 있어 체계적인 constant comparison 방법을 사용한다. 본 연구는 코빈과 스트라우스가 권장하는 개방 코딩(open coding), 축 코딩(axial coding), 선택 코딩 (selective coding) 방법을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으며(Corbin & Strauss 2008; Strauss & Corbin 1990; Glaser & Strauss 1967) 이 방법을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 분석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수면 위로 드러난 주제 및 용어들을 포착하여 현상을 유형화하고 분석하였다.

## IV. 연구 결과

**RQ1.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유학생들이 유학생생활 하면서 직면하는 문제는 무엇이며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는가?**

### 1. 밀월기간(Honeymoon)은 처음부터 없었다

문화적응에 있어 새로운 문화권에 유입된 이민자들은 초창기 때 일정기간의 'honeymoon' 혹은 밀월 기간을 경험한다. 이는 새로운 문화권의 문화가 신선하고 새롭기 때문에 해당 문화를 접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기간을 즐기며 재밌어 한다. 이 기간에는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새롭고 다름을 긍정적으로 인식한다(Winkelman 1994).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연구에서도 흔하게 나온 밀월 기간이 유학생들에게 없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모든 학생들이 처음 한국에 도착해서부터 학교에 서류를 제출하고, 숙소를 찾아 짐을 풀고 정착하는 등 지속되는 긴장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한국 사회나 문화를 누릴 수 있는 심리적인 여유 없기 때문이다. 또한 학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함에 앞서 언어능력시험을 특정 수준 이상으로 봐야 하는 경우 학생들은 더 조급하게 한국 유학생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만약 시험을 통과하지 못할 경우 정규 과정을 시작하기도 전에 한 학기 동안 언어공부를 해야 하는 입학조건이 있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학교에 진학한 학생들은 더욱 스트레스를 받는다. 또한 몇몇의 학교는 언어 과정을 지방에서 수료하게 하는 관계로 서울보다 다양성의 수

용성이 더욱 낮은 지방에서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6개월 동안 거주를 해야 하는 상황은 학생들에게 큰 불편함을 가져온다. 지방의 경우 외국인들이 그리 많지 않고 사투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는 데 어려움이 있을뿐더러 외국인을 접할 기회, 외국인을 접해 본 한국인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 서양음식을 접할 수 있는 기회 등등이 낮아 더욱 그렇다고 할 수 있다.

입국 후 학업을 바로 시작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정규 과정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한국어를 배워야 하고 학업을 시작한 후에는(특히 대학원 일 경우) 영어를 새롭게 배워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영어를 전혀 쓰지 않는 베트남에서 온 학생들은 긴장감을 늦출 수가 없다. 언어의 부담 이외에도 강의 따라가기, 과제, 시험의 부담이 있고 학과에 외국인인 한 명밖에 없을 경우 더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과제 등에 대하여 물어볼 수 있는 상대를 찾는 것도 쉽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honeymoon 기간은 모든 문화가 새롭고 자신을 긍정적으로 받아 들여 주며 주위에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거나 할 경우에 더 느낄 수 있는데, 인터뷰 결과 자신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져준다거나 처음 막 유학을 왔기 때문에 도와주려고 하는 친구를 만났던 학생은 한 명도 없었다. 오히려 처음에 오자마자 같은 기숙사에서 방을 쓴 한국인 룸메이트와 갈등이 생겨 유학 초창기부터 더 큰 스트레스를 받은 학생도 있었다.

그 밖에도 장학금 등으로 생활비 지원을 받지 않을 경우 경제적 부담이 있기 때문에 간간히 아르바이트를 해서 용돈을 버는 학생들도 있었다. 인터뷰에 응한 대부분의 학생이 경제적인 부담감을 호소하였고, 이러한 학생들은 이중 삼중의 부담을 가지고 유학생생활을 시작하기 때문에 유학 초창기부터 honeymoon 기간 없이 바로 전력태세로 들어간다고 할 수 있다.

## 2. 끊이지 않는 진퇴양난의 상황

한국에 유학을 온 학생들이 겪는 문제는 다양하고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많은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한 문제는 대학의 행정 및 교육 시스템이었다. 특히 수강신청, 교수법, 교수와 학생 간의 관계, 행정업

무 절차, 방법, 관행, 졸업조건 등 모든 것이 본국과 다르기 때문에 학교 시스템을 이해하고 기간에 맞춰 절차를 밟는 것이 쉽지 않음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많았다. 말레이시아에서 온 한 남학생은 영어로 들을 수 있는 수업도 많지 않은데 저학년이라는 관계로 늦게야 수강신청을 할 수 있게 하고 수강신청 변경 등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 제대로 알려주는 직원이 없어 한국에 온 이후 3년 동안 6kg 정도가 빠졌다고 토로하였다. 그 이외의 많은 학생들이 국제학교라고 하여 모든 과정을 영어로 수료할 수 있다고 공지한 후 정작 한국에 도착하여 보니 행정업무 직원 중 영어를 할 줄 아는 직원이 한 명도 없어 하는 수 없이 선배들의 도움을 받아 해결해야 했다고 하며, '어떤 문제는 학생들이 직원들보다 더 잘 안다'고 덧붙였다. 인터뷰 학생들 중 몇몇은 본국 혹은 한국에서 장학금을 받고 있는 관계로 기간에 맞춰 졸업을 해야 하여 더욱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또한 학업을 시작할 때 요구하지 않았던 사항이 졸업을 얼마 앞두고 필수조건으로 들어가며, 이러한 중요한 사항을 '통보'식으로 공지하는 체계가 당황스러웠다는 학생들도 있었다. 학교의 업무 처리와 관련 되어 이외에도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인터뷰 대상자들은 또한 한국 유학생생활에서 겪는 어려움들 중 한국 친구를 사귀는 것이 어렵다고 밝혔다. 우선적으로는 언어의 장벽으로 인해 친구를 빨리 사귀기 어렵고 한국 학생들은 동남아에서 온 유학생들보다 서양권에서 온 유학생들을 사귀고 싶어 하여 한국 친구를 사귀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고 토로하였다. 특히 본인들은 서양권의 학생들보다 한국어를 더 잘하지만 한국 친구들은 자신들이 한국어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오히려 더 빨리 배우지 못한다고 핀잔을 주는 반면, 서양권 친구들에게는 더 관대한 태도를 보여 상처를 받았다고 한다. 또한 결국 한국 친구들을 사귀게 되어도 가치관이 너무 달라서 관계가 오래가지 않는다고 하였다. 특히 외모지상주의, 술문화 등을 보면서 한국 친구들과 사귀는 것을 꺼리게 되었다고 밝혔다. 눈치문화가 있는 베트남과 말레이시아에서 온 학생들의 경우 한국 사회에 더 잘 적응하는 편으로 나타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와의 수직관계, 연구실에서 퇴근하는 데 눈치를 봐야 하는 것, 학과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 익혀야 하는 술문화 등이 어렵다



고 하였다.

경제적인 문제도 개인차가 있었지만 하나의 중요한 문제로 나타났다.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도 여유롭게 받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산을 잘 짜고 검소하게 사용해야 했으며 장학금을 받지 않는 학생들은 더욱 큰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말레이시아에서 온 어느 학생은 본국에서 신선한 해산물, 야채, 과일을 저렴한 가격에 먹을 수 있어 채식 주의자로 살았었는데, 한국에 오니 과일과 채소가 너무 비싸서 다시 고기를 먹기 시작했다고 하였다. 말레이시아에서 온 다른 학생도 말레이시아에서는 음식의 종류도 다양하고 식도락가가 많아 자신도 하루에 소량으로 5-6번 식사를 하는데, 한국에 와서 보니 학생식당의 음식 종류가 그리 많지 않고 입맛에 잘 맞지 않으며 저렴하지도 않아 하루에 1-2끼로 줄었다고 하였다.

인종차별도 유학생들의 어려움 중 하나로 나타났다. 특히 여학생들일 경우 현재 한국에도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에서 온 결혼이주여성들이 많은 관계로 밖에 혼자 다닐 때 자신을 결혼이주여성으로 간주하고 대하는 한국인들이 있다고 하였다. 한 베트남 대학원생은 학교 근처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한국 중년 남성이 남편은 어디에 있냐고 물었다고 한다. 또 다른 여성은 학교 근처 지하철역에서 내렸는데 술에 취한 것 같은 한 남성이 어디에서 왔냐고 계속 물어보며 따라왔다고 하였다. 이 여학생들은 한번씩 밖에 없는 경험이었지만 너무 황당하였으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우선 자리를 피했다고 하였다. 하지만 왜 자신이 베트남에서 왔다고 하여 바로 결혼이주여성으로 간주하였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하며 고개를 흔들었다.

이렇듯 유학생들은 다양한 상황을 문제점으로 인식하였으며 자신이 해결하려고 노력하였지만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호소하며 이러한 문제점들이 유학생들에 불만족을 가져오고 한국 사회 그리고 한국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으로 이어진다고 하였다. 또한 한국에서 겪는 대다수의 문제들을 자신이 해결할 수 없고 그렇다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늘 이리저리 저리저리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다고 하였다. 인터뷰에 참여한 학생들은 이러한 문제

점들을 유학생생활 초기에 발견하였지만 이미 한국에 오기로 자신이 결정하였기 때문에 어려워도 참고 졸업을 하기로 한 학생들이었지만 한 학생의 경우 자신의 동기들 40명 중 20명 정도가 첫 해에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서울에 있는 다른 학교로 편입을 하거나 다른 나라로 유학을 갔다고 하였다.

**<표 4> 동남아 유학생들이 겪는 어려움 유형별 분류표**

문제 분야	세부적인 문제	학생들의 태도/생각/의식
학업/ 학교 행정	교수법	· 수업시간에 질문하기 어려움 · 주입식 적용 안 됨
	팀워크를 한국어로 진행	· 배려 부족
	졸업 필수 요건 수시 변동	· 수직적인 처리 방법 · 투명성 없음 · 실험 대상 같은 느낌
	수강신청 방법	· 대기 시간이 길고 영어 강의 부족
	웹사이트 정보와 실제 프로그램 불일치	· 학교 프로그램 카탈로그 혹은 입학 전 웹사이트에 제공된 정보와 실제 큰 차이
음식	다양성 부족/가격	· 다양한 음식 접하기 어렵고(예: 할랄음식 구입 어려움) 물가가 높음
관계	한국 학생들의 서양 학생들과 동남아 학생들 대우 차이	· 피해의식, 차별대우 받고 있다 생각 · 한국 친구를 사귀기 어려움
	사회적인 동남아 지역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 외국인들에 대해 사회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 · 한국어를 빨리 배우라고 지적하는 반면 한국어를 잘 해도 외국인이라고 치부, 배척 · 한국어를 빨리 배우지 못한다고 생각, 노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음
	한국 사회적 규범	· 술문화, 눈치문화, 빨리빨리, 불필요한 야근 등 이해하기 어려움 · 사회적 단서를 많이 얻기 위해 유학 초반에 주로 상황, 사람들을 관찰.
경제적	장학금 액수	· 한국 물가가 너무 높아 한 달 생활비로 부족함

### 3. 다름을 인정

인터뷰 결과 유학생들은 처음에 한국에 와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생각했던 것과 현실의 괴리감을 느낄 때 실망과 외로움을 많이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유사한 어려움을 겪었지만 유학생생활을 만족스럽게 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었다. 이들과의 인터뷰 결과 만족스러운 유학생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계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학생의 경우 처음 6개월 동안 어학연수를 밟았는데 한국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 많이 아팠던 적이 있었다고 하였다. 그때 처음으로 ‘아 나는 정말 혼자구나. 여기서 어떻게 성공적인 유학생생활을 위해서 더 강해져야 하고 더 독립적으로 생활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또 한 학생은 유학 오기 전에 본국에서 문화다양성을 옹호하는 NGO 단체에서 일을 하였고 그곳에서 다른 문화는 틀린 것이 아닌 다른 것이기 때문에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구호를 가지고 일을 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막상 자신이 한국에 와서 자신이 하는 행동을 유심히 관찰해 보니 한국 문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불만만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였다고 한다. 그 후로 다양성의 수용성이 낮은 한국 사회와 한국 사람들을 비판만 하지 말고 왜 그런지 어떻게 하면 나의 다름을 알려주고 한국의 다름을 내가 더 받아들일 수 있을지에 대하여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 두 학생 모두 처음에는 힘들어 했지만 3년이 지난 지금은 모두 만족스러운 유학생생활을 하고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 두 학생 이외에도 다른 몇 명의 학생들이 유학 초창기 때에 어느 정도 상황을 파악하고 자신이 직면한 문제점과 장벽을 이해한 다음에 현실적으로 문제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고민하고 생각을 바꾼 계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은 주로 핸드폰 개통, 수강신청, 병원 방문 등 정착할 때 필요한 도움을 주는 이들이 없어 많이 힘들었지만 자신이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서 독립심도 커가고 적응에 자신감도 생겼다고 하였다. 많은 경우 이들은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고 처음으로 해외에 유학을 온 경우이기 때문에 부모님 곁을 처음으로 떠난 학생들이었다. 물론 본국에서도 대학교를 멀리 갈 경우 부모 곁을 떠나 대학생으로 독립심을 키워가야 하지만

언어가 통하지 않고 문화가 다른 환경에서 자립하는 과정에는 더 큰 용기와 어려움이 따른다. 또한 한국에서 오래 거주한 학생일 경우 20대의 청년들이 겪는 고민에 더해 자신의 인종 및 민족 배경에 대하여 더 고민을 하게 되어 의도하지 않게 정체성 고민을 더 하게 되었다는 학생들도 있었다. 하지만 만족스러운 유학생생활을 하는 학생들은 이러한 과정을 순리로 받아들이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해 나가면서 잘 적응하고 있었다. 이러한 여러 계기를 통해 생각과 태도를 바꾼 학생들은 더욱 활발하게 친구도 사귀고 새로 한국으로 유학을 온 학생들도 도우며 비교적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한국에 오기 전에 한국이 발전국가이기 때문에 다양성에 대한 수용성이 미국과 유럽같이 높은 국가라고 간주하였으며 이들은 이구동성으로 ‘한국도 미국처럼 외국이라고 생각하고 (다양성이)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였다. 한국이 발전국이고 유학생들을 많이 받아들이는 추세이기 때문에 시스템도 서양화되어 있을 것이라는 생각,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과 같이 현지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없어도 생활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클수록 실망은 더 크게 다가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실을 파악하고 다름을 틀린 것이 아닌 다름으로 인정하고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은 포기하고 할 수 있는 부분에 주력하자 등의 생각의 전환이 문제를 다른 각도로 바라볼 수 있게 해준 것으로 보였다.

## **RQ2.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유학생들은 자신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대응기제 방법을 사용하는가?**

### **1. 소극적인 문제 대응기제법**

인터뷰 결과 유학생들 모두 비슷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었고 문제는 각기 달랐지만 거의 모두가 소극적인 대응기제 방법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뷰에 응한 유학생들은 문제 대응 방법으로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접근을 하기보다는 문제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특히 감정적인 부분이 해소될 수 있

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보였다. 그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부모 친구 등 지지 네트워크를 찾아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학생들도 있었고 혼자 조용히 시간을 보내면서 부정적인 감정과 스트레스를 삭히는 학생들이 있었다. 특히 후자일 경우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시공간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스스로에게 주는 상’이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생각을 정리한다는 학생들이 있었다. 이 학생은 “외부에서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없다 보니 혼자만의 시간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 학생은 3년 동안 같은 동네에서 거주하였지만 아직도 밖에 나갈 때에는 예측하지 못한 ‘돌발 상황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에 외롭더라도 방 안에서 모든 변수가 통제 가능한 공간을 허락하는 것이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하였다. 다른 학생들도 자신만의 ‘상’이 있었다. 어떤 학생은 간식으로, 운동으로 혹은 친구들과 본토 음식을 해먹고 산책을 나가거나 노래방을 가는 등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 문제에 대응하고 있었다.

인터뷰 결과 대부분의 경우 학생들은 자신의 문제가 해결 가능한 문제라고 보지 않았다. 특히 한국 사회, 문화와 관련된 문제, 가령 인종차별 등의 문제는 자신이 노력하여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곧 깨닫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우선적으로 회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종차별 같은 문제는 자신이 노력을 하여도 주최국의 사회적 문제 혹은 주최국이 자신을 받아주는 태도에 따라 문제의 해결 여부가 달려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런 부류에 해당되는 문제는 여럿으로 나타났는데 한국의 수직문화, 술문화, 담배문화, 불필요한 야근, 빨리빨리문화, 남녀차별, 다문화에 대한 낮은 수용성, 동남아 사람에 대한 차별 등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학생들은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를 못 느낀다고 하였으며 처음에는 매우 불쾌하고 개인적으로 받아들였지만 한국 문화를 점차 이해하면서 그냥 넘어갈 수 있게 되었다고 입을 모아 얘기했다. 하지만 안 좋았던 기억들은 계속해서 남는다고 하며 더 많은 좋은 경험이 있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RQ3.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유학생들이 대응기제 방법을 선택하는 데 사회적 지지 네트워크와 임파워먼트는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

### 1. 사회적 지지 네트워크 찾아나서기

인터뷰 결과 유학생들은 유학생회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본국에 있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자주 연락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여학생은 본국에 있는 남자친구와 하루에 2-3시간씩 스카임을 하고 한 남학생은 어머니와 일주에 2번씩 1시간 반 가량 통화를 한다고 하였다. 부모가 상황을 이해하는 경우 학생들은 구체적인 문제에 대하여 상의하고 조언도 구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지만 부모님이 너무 걱정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거나 본국에서도 부모와 자주 소통하지 않았던 학생들은 친한 친구와 자주 연락을 하며 스트레스를 푸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뷰 결과 학생들은 꼭 같은 국가에서 온 친구들을 찾기보다는 마음이 맞거나 같은 상황에 놓여 있어서 서로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유학생 친구들과 어울렸으며 주로 음식을 해 먹거나, 노래방을 가고, 산책 등을 가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어에 대한 스트레스, 졸업과 성적에 대한 부담감과 경제적 문제 등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숫자적으로 비교적 많은 베트남 학생들은 다른 나라에서 온 유학생들보다 본국에서 온 학생들과 더 많이 교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응집력이 매우 강하지는 않았다. 다른 국가의 학생들은 본국에서 온 학생들을 찾지 않고 마음이 맞는 유학생들과 같이 어울렸다. 할랄음식을 먹어야 하는 인도네시아 학생들도 구지 인도네시아 친구들을 찾아서 식사를 해결하지는 않으며 이태원 등에 있는 인도네시아 단체를 찾지도 않았다.

몇 명의 학생들은 학교의 외국인 유학생 담당자와 좋은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지 네트워크를 형성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뷰 결과 학교의 외국인 학생 담당자와의 우호적인 관계가 만족스러운 학교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학교에 다니는 4명의 학부, 대학원생

들과 인터뷰한 결과, 4명 모두 학교와 관련된 문제가 있을 경우 담당자를 먼저 찾아갔으며 서비스에 매우 만족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문제가 있을 경우 학과의 교수와 학과 친구들과의 관계가 스트레스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학생의 경우 유학을 오게 된 이유도 현재의 지도교수 덕분이라며 자신의 학과에 유학생이 한 명이라서 더 잘 해야 한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외국 유학생들에게 친절하게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학교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으며 유학생회에 높은 만족도와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동기부여를 가지고 있었다. 반면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학교에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으며 빨리 졸업하고 본국으로 돌아가길 기다리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 2. 약한 사회적 지지 네트워크

하지만 인터뷰 결과 유학생들의 사회적 지지 네트워크는 매우 약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개인의 차이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유학생들은 학생 동아리, 종교 단체 등에 소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인적자원이 매우 협소하였고 동아리나 유학생 협회 등에 가입이 되어 있어도 연결망은 비교적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학생은 학교에 입학한 후 학교의 외국인 유학생 동아리, 한국의 '말레이시아 유학생 협회' 등에 가입은 하였지만 유의한 정보와 도움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지속적인 참여를 하지 않고 있었다. 또 한 학생은 학교에서 맺어주는 'buddy system'에 등록하였지만 한 한기에 한 번 정도밖에 만나지 못했고 학교의 유학생 모임은 한국 문화에 대한 소개를 다양하게 하지 않아서 2-3번 나간 후에 그쳤다고 한다. 다른 학생은 한국어를 더 빨리 배우고 한국 사회에 더 잘 적응하기 위해 일부러 본국에서 온 학생들과 어울리지 않았다고 한다. 본국에서 온 학생들과 만나면 마음은 편하지만 아무래도 모국어를 사용하게 되니 일부러 이들과의 만남을 피하고 자원해서 모 불교단체에 연락을 해서 자원 봉사 등을 하며 한국 사람들과 만날 기회를 늘렸다고 한다. 이 불교단체에서 영한 번역 등을 도우며 자원봉사를 하는 이 학생은 한국에 온 지 3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한국어를 매우 유창하게 구사하였고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도 매우 높았다. 이 학생은 약 3년간 이 단체에서 봉사를 하여 이제는 직원들을 언니 오빠라고 부르고 이들도 자신을 잘 챙겨준다고 하였다. 이 학생 이외에 교내·외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학생은 없었으며, 학교 근처 교회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이 한 명 있었지만 교회 사람들과의 접촉이 적어 심리적인 의지나 도움이 필요할 때 연락할 정도는 아니라고 하였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업에 대한 부담감, 자신과 같은 유학생이 더 편한 관계로 일반 단체나 조직 등에 소속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학생들 모두 사회적 지지 네트워크 혹은 자원이 낮고 서로 비슷한 처지이기 때문에 서로를 많은 의지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본국의 부모님, 친구, 학교의 유학생 담당자 등 자신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혹은 물리적으로는 거리가 있지만 심리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았고 주로 사회적 자본이 많이 축적되어 있는 협회, 단체 등은 찾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자신의 네트워크가 작으며 자본이 적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취업, 이사, 법률 관련 문제 등등의 문제에 부딪힐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람이 적어 어려움을 겪는다고 얘기하며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공동체가 있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 3. 너무 다른 한국 문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임파워먼트의 첫 단계

동남아시아권 유학생들은 한국 사회 및 한국 문화에 있어 받아들일 수 없는 특정 문제들이 소극적인 대응기제 방법을 선택하는 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뷰 대상자들은 한국에 온 지 모두 1년 이상이 된 학생들로 한국 사회 및 사람들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다양성에 대한 낮은 수용성, 외국인에 대한 편견, 외모지상주의, 엄격한 위계질서 등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이해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다수의 학생들이 언급하였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국친구들과 많은 얘기를 나누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 단 두 명의 학생들



만 자신과 의견 차이가 있는 친구들과 얘기를 해 보았다고 하고, 다른 학생들은 문화 차이에 대해서 주로 수궁하며 한국 친구들과 논의를 해 보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들과 더 많은 대화를 통해 혹은 한국 사회 안에서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체험하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 두 학생을 포함한 다른 학생들은 특정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하며, 이러한 점은 가치관의 차이이며 좁혀가기 어렵다고 하였다.

인터뷰 결과 학생들은 자신의 문제(학교, 관계, 문화 차이 등)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문화에 대해 더 잘 이해하려고 노력하였지만 유학생 생활 초기에 자신이 받아들일 수 있고 수궁할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못할 부분을 깨닫고 거기에 상응하는 태도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학업을 따라가기 위해서 더 공부를 열심히 한다든지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번역 등)를 찾는든지 할 경우에는 한국 사회의 기대에 맞게 행동하는 반면 그렇지 않을 경우(즉 이해할 수 없는 부분, 자신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 문제일 경우)에 있어서는 자신의 생각을 바꿔가면서까지 행동을 바꿔 대응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자신에게 맞는 부분은 받아들이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은 다름을 인식하고 수궁하는 부분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방어기제였다. 대상자들이 하나같이 언급한 부분은 한국 사회가 오랜 시간 동안 단일민족으로 있었기 때문에 다른 문화에 대한 수용도가 낮다는 것이었다. 이들은 직간접적인 체험을 통해서 한국 사회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고 있었고, 이러한 사회구조적인 부분, 역사, 문화, 정치 때문에 자신들이 차별을 받는다는 것을 인지하고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이러한 자세를 토대로 유학생들은 자신이 한국 사회의 낮은 타 문화 수용성에 의해 차별받는 피해자가 아닌, 어느 정도의 자신의 상황/문제가 자신의 문제보다 더 큰 사회적 구조와 맞물려 있다는 것을 인식한, 즉 임파워된 개인들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임파워먼트의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다.

## V. 논의

### 1. 사회적 네트워크, 임파워먼트와 소극적 저항 대응기제법

인터뷰 결과 연구 대상자들은 국가별 차이 없이 모두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요 문제는 학업/학교, 인간관계, 문화 차이(가치관, 음식), 언어장벽, 인종차별 등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유학생 관련 연구와 비교해 볼 때 국내의 동남아 출신 유학생들이 인종차별을 유학생 생활 중 겪는 어려움 중 하나라고 밝힌 점이 두드러진 차이점이다.

문제를 받아들이는 태도에 있어서는 다소 개인 차이가 있었지만 참여자들 모두 한국에서 거주한 지 1년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한국 문화, 사회, 한국 사람들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어 모든 문제를 문제화하지 않는 유연함을 보였다. 학생들은 한국 사회 및 문화에 대한 이해가 더 생기고 언어에 대한 자신감이 생길수록 자신의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더 뚜렷해진다고 하였다. 가령 개인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과연 이 문제가 내가 동남아시아권 출신 학생이기 때문에 차별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같은 나이의 한국 사람도 직면할 수 있는 문제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거기에 따라서 자신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해결해 나갈 것인가 정하는 학생들이 있었다. 확실한 것은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한국 사회, 문화에 대한 이해가 적었기 때문에 자신이 직면한 상황에 행동을 바로 취하지 않고 다른 사람/상황들을 관찰하여 문화적 규범을 배워 나갔지만, 해가 거듭되고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질수록 자신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파악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상황 판단을 할 수 있는 사회적 단서(social cues) 혹은 문화적 코드에 대한 이해가 늘어날수록 한국 사회, 한국 사람들에 대한 기대 또한 높아져 가는 것으로 보여졌다. 처음에는 잘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수긍하고 받아들이며 자신의 태도 혹은 자세를 바꾸려고 하였지만 더 많은 사회적 맥락을 이해할수록 취할 것은 취하고 포기할 것은 포기하며(자신의 가치관에 부합하지 않아) 받아들이기 싫은 것은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 문화에 대하여 이해하기 때문에 한국인처럼 행동할 수 있지만 일

부러 한국 사회에서 받아들여지는 행동을 취하지 않을 때도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태도는 수동적으로 보이지만 단순히 수동적이지만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학교 행정, 교수법 등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에 있어서는 수긍하는 수동적인 자세를 보였지만 가치관은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서 반수동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었다. 즉 자신이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문제는 에너지 소모를 위해 수긍하지만 동의 혹은 긍정적인 태도나 생각을 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형태는 디에즈 구레로가 제시한 바와 마찬가지로 주최국의 문제 해결에 대한 관심도가 낮을 경우 적극적인 대응 방법은 성공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선택하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Diaz-Guerrero 1979). 하지만 참여자들의 대응법은 소극적인 적응 형태도 아니었다. 다시 말해, 이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 자신을 바꾸려고 노력을 하지도 않았다(Diaz-Guerrero 1979).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들은 오히려 행동적으로는 소극적인 하지만 생각, 태도는 적극적인 거부 형식을 띠는, 소극적인 저항기제 방법을 택하였다. 이는 자신에게 맞는 수준에서 자신에게 가장 편한 행동/태도를 취하는 대응기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주최국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해가 있을 경우 가능한 것으로 보여졌다. 이들은 자신의 가치관에 부합되고 자신이 좋아하는 한국 문화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만 그렇지 못한 한국 문화는 자신들이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기 때문에 이러한 대응기제 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이러한 소극적 저항기제 방법은 유학생들이 임파워먼트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개인에게 직면한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지에 대해서는 개인의 자유와 선택이 주어졌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인종차별을 경험하였지만 위축되지 않고 한국 문화·사회, 한국 사람들을 더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 결과 인종차별을 포함한 자신이 직면한 여러 문제가 한국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와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고 큰 틀에서 자신의 문제를 바라보게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에게 힘을 부여하고 임파워되며 좀 더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는 힘이 생겼다고 할 수 있다.

인터뷰 결과 이러한 과정에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이 사회적 지지 네트워크

크로 나타났다. 기존의 연구에서도 사회적 네트워크는 새로운 문화에 정착하는 이들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로 나타난바 있다. 특히 본국에 있는 가족 및 친구 네트워크는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겪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Cohen & Syme 1985; Furnham & Bochner 1986).

본 연구에서는 유학생들의 경우 네트워크가 협소하여 자원이 적고 심리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공동체의 부재로 더욱 어려움을 겪는데, 지지 네트워크 혹은 공동체가 있을 경우 소속감을 가질 수 있고, 이러한 소속감은 학생들에게 자신감을 부여하는 것으로 보여졌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대학교 혹은 대학원 진학을 위해서 한국에 오기 때문에 가족과 친한 친구들을 떠나 혼자 한국으로 와서 한국 문화와 언어를 습득해 나가며 학업을 마쳐야 하는 큰 과제를 안고 지내는데, 다양성에 대한 수용성이 낮은 한국에서 생활하다 보면 생활 속에서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하지만 이런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법도 많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식, 자원, 네트워크, 경험 등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욱 자신의 선택이나 생각에 대하여 확신을 갖기 어렵다. 하지만 자신이 소속감을 느끼는 공동체가 있을 경우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느낌/경험 등에 대하여 들으면서 자신의 선택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고 궁극적으로 임파워되는 과정을 겪게 된다. 이러한 경험을 한 학생들의 유학생생활 만족감과 그렇지 않는 학생의 경험은 확연히 차이가 있었으며,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좁은 네트워크에 대하여 인식하고 어느 정도 넓히기 위하여 (자원을 얻기 위한 의도적이건 아니건) 다소 노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모두 소속감을 가질 수 있는 공동체를 찾는 것은 아니었다. 다시 말해 사회적 네트워크와 만족스러운 유학생생활 혹은 (정신적으로) 건강한 유학생생활과는 관계가 있었고 소속감을 느끼는 네트워크가 있을 경우 유학생생활에 자신감을 갖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문제를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에 대한 판단이 세워지고 자신에게 맞는 대응기제 방법을 찾아나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회적 지지가 약하거나 없는 유학생들의 경우 학업성과 저하 및 우울, 혼란, 긴장 등의 심리적 경험을 하는 것을 고려했을 때(Hovey

2000; Pederson 1991) 국내의 유학생들이 더 잘 적응하고 만족스러운 유학생생활을 하기 위해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다른 국가에서는 유학생들에게 같은 국가에서 온 학생들과 만날 수 있도록 연결을 시켜주고(Prieto 1995) 다른 유학생들 및 교수들과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Abe et al. 1998) 또한 교외 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oyokawa & Toyokawa 2002; Yeh & Isono 2003).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유학생들의 심리적인 안정과 임파워먼트를 위해 사회적 지지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도움을 주는 것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겠다.

특히 국내에 동남아에서 온 학생들의 숫자가 그리 많지 않고 한국의 유학생 유치 역사도 짧으며 현지에서 정착하고 일을 하고 있는 본국 출신의 선배들이 많지 않은 관계로 안정적인 네트워크가 형성되지 않아 동남아권 학생들에게 공급될 만한 사회적 자본 역시 매우 적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유학생들을 도울 수 있는 본국 출신의 선배들과 이주자들의 생활이 더욱 안정적으로 정착이 되면 이들에게 더 많은 사회적 자본이 공급되고 문제에 직면했을 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네트워크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꼭 본국 출신의 선배, 동기들이 아니어도 이들이 소속감을 가질 수 있는 유학생 네트워크 혹은 학생회 등이 있다면 만족도 높은 유학생생활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안정적인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도록 기반을 잡을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2. 대응기제 방법 선택에 있어 주최국 태도의 중요성

대응기제 방법 선택에 있어서는 상대, 즉 한국 사람 혹은 한국 사회가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지가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최국이 외국인 혹은 특정집단에 대해 호의적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자신이 어떠한 태도 및 생각을 하게 되는지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기존의 연구와 유사하였다(Berry et al. 1987). 인터뷰 대상자들은 자신이 문제에 부딪혔을 때 자신에게 배려를 해주는지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는지 등등이

매우 중요하며 거기에 따라 대응 방법을 취하게 된다고 하였다. 특히 한국 사회가 동남아시아인들에 대하여 서양인들보다 배타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무시하고 있는 것인지 인종차별을 하고 있는지 등등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뷰 결과 부정적인 경험들은 오랫동안 기억이 되기 때문에 되도록 한 번의 부정적인 경험을 가지고 한국 사회나 사람들에 대하여 일반화하지 않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으며, 더 많은 긍정적인 체험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가려고 하고 있었다. 모든 유학생들은 인종차별의 경험이 있었으며 인터뷰를 하는 와중에 다시 흥분을 하며 상황을 자세히 묘사하는 학생들도 있었다. 어떻게 그렇게 행동을 할 수가 있느냐며 반문을 하고 공감을 얻고자 하는 학생들도 있었다. 모든 학생들이 이구동성으로 토로한 점은 자신들도 외국인으로서의 삶은 처음이며 자신의 본국은 한국처럼 인종을 서열화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야 인종차별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베트남을 제외하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모두 다인종 국가이기 때문에 여러 인종의 친구들과 함께 중고등학교를 다닌 학생들이 많았고 자신이 한국에서 자신의 인종/민족 배경 때문에 차별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고 한다. 베트남의 경우 자신들도 베트남보다 덜 발달된 국가에서 외국인인 오면 차별을 할 수 있겠지만 한국처럼 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누구와 있던 서로에 대한 배려와 존중 그리고 관계를 위한 같은 수준의 노력(level of engagement) 등이 동남아시아권의 유학생들이 대응기제 방법을 선택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드러났으며 이러한 호의적인 태도를 볼 때 자신도 한국어를 더욱 열심히 배우고 한국 사회에 더욱 빨리 적응하고 싶은 동기부여가 된다고 하였다. 반면 노력이 인정받지 못하고 자신이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이 현저하게 드러날 경우 낙심이 된다고 하며 더욱 노력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고 강조하였다.

인터뷰에 응한 학생들 중 인종차별 혹은 한국에서 겪고 있는 문제 때문에 심각한 심리적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학생들은 없었지만, 만약 이러한 문제로 상담을 받고 싶을 경우 어디서 상담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있는지 묻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유학생들은 많은 경우 학교의 상담센터 및 교수 등을 찾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기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경우 지지자로 자신의 가족 혹은 친구들에게 찾고(Zhai 2002), 주로 자신과 문화와 언어가 같은 유학생들을 찾을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담을 받는다는 것의 사회적 편견(Yeh & Inose 2003) 및 유학생들을 위해 훈련을 받은 상담사의 부재, 유학생들의 인식 부족, 신뢰도, 비밀 유지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발전도상국에서 왔을 경우 본국의 상담센터 부재 등으로 인한 센터 서비스에 대한 생소함 및 본국이 상담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이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유학생들을 위해 교내에 사회적 지지 그룹 및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여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Olaniran 1993; Yeh & Inose 2003), 유학생들을 상대하기 위해 훈련을 받은 상담사들을 배치하여 한국 사회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방법을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 VI. 결론 및 제언

한국은 OECD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유학생의 수가 다른 OECD국에 비해 낮은 편이다.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더 많은 유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현재 한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학생들이 문제라고 인식하는 부분들을 파악하고 만족스러운 유학생생활에 필요한 요소들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요소들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된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현재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동남아시아권 유학생들은 유학생이라는 정체성보다 내국인들에 의해 아시아인, 특히 동남아시아인이라고 규명된 정체성이 이들의 문제를 규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학교/학업적으로,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경험하고 있었으며, 자신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는 소극적 저항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뷰 내용 분석 결과, 동남아 지역 유학생들은 자신의 문제를 큰 사회적 틀 안에서 바라보며 임파워되었고, 이 과정에서 사회적 지지 네트워크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대응기제 방법을 선택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 방법으로 이들에

게 사회적 네트워크를 연계시켜 줄 것을 제안한다. 소속감을 가질 수 있는 네트워크를 연결해 줌으로써 개개인들이 임파워되고 자신이 직면한 문제를 자신의 가치관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풀어 나갈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다른 차원에서는 이들이 자신의 문제가 한국 사회의 여러 구조적인 문제와 맞물려 있음을 지각하고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가 형성되지 않도록 이들의 문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할 것을 제안한다. 이들이 자신이 해결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문제들을 작게나마 해결해 줌으로써 소극적인 저항이 아닌 적극적 대응 방법 혹은 감정적 대응 방법을 선택하도록 (즉 자신의 생각과 태도를 바꾸는 형태) 함으로써 한국 사회에 대하여 더 우호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갖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인터뷰 과정 속에서 반복적으로 나왔던 지적은 한국 학교들이 너무 많은 유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보다 현재 학생들의 피드백을 통해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프로그램을 파악하고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점이었다. 또한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하여 학교 웹사이트에서 현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부적절하며 학교 프로그램의 투명성, 진실성이 오히려 불필요한 오해와 실망을 피할 수 있고 학생들의 이해와 공감을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제안하였다. 또한 유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자신들이 한국에 오고 싶어서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실망은 기대하고 있으며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한국어를 더 잘 배우라고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도 지적하였다. 이는 유학생들을 마치고 한국에서 취업 혹은 결혼 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생활에 더 빨리 적응하기 위해서 한국 문화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수업을 개설하고 한국어를 잘 배울 필요성을 누누이 강조해야 한다고 하였다.

연구에 들어가기에 앞서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모두 집단주의 성향이 강한 국가 출신의 유학생들이기 때문에 집단주의인 한국에서 유학을 할 때 더 잘 적응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였으나, 인터뷰에 따르면 평등, 대인관계, 다름에 대한 수용성 등에 대한 가치의 중요도가 달라(개인의 차인도 있겠지만) 대상자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사회적 거리감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국가별 차이점이 무엇인지 또한 집단주의 국가 출신이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점이 적응하는 데 수월하였고 어떠한 점은 어려웠는지 대한 부분까지는 파악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부분과 과연 집단주의 성향의 국가에서 온 유학생들이 개인주의 국가 출신의 유학생들에 비해 적응 과정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부분은 후속 연구에서 다루어져야 할 부분이다.

본 연구를 진행하는 데 있어 인터뷰 대상자들을 섭외하는 데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출신의 남학생들과 말레이시아 학생들을 여러 대학교 교내 게시판 그리고 같은 국가 출신의 학생들을 통해 섭외를 시도하였지만 어려움이 있었다. 성별, 거주 기간, 나이 등에서 더 많은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면 더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었지만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되도록 인터뷰를 길게 진행하여 라포를 형성하고 더 깊은 이야기를 끄집어내기 위해 노력하였다.

교육부의 2023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현재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유학생들을 더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동남아 국가 출신의 학생들은 한국에 공부를 하고 싶어서 온 학생들이고 더 많은 긍정적인 경험을 하고 싶어 한다. 이러한 긍정적인 경험이 한국에 대하여 더 호의적인 태도를 형성하는 데 십분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학업을 마치고 본국 혹은 제3국으로 가게 될 이들은 앞으로 한국과 타국의 문화적 국가적 가교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인적 자본이다. 이에 이들이 한국에서 만족스러운 유학생생활을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며 이들의 필요에 적합한 자원을 제공하고 준비하는 데 주력하는 것이 현재 시점에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겠다.

| Appendix A 인터뷰 대상자 |

	출신 국가	성별	연령	국내 거주 기간(년)	학위과정
1	인도네시아 1	남	23	1	학부
2	인도네시아 2	여	24	1	학부
3	인도네시아 3	여	23	1	학부
4	인도네시아 4	여	25	1	학부
5	인도네시아 5	여	26	1	대학원
6	인도네시아 6	여	31	4	대학원
7	말레이시아 1	남	25	2	학부(장학생)
8	말레이시아 2	여	23	3	학부
9	베트남 1	여	28	6	대학원
10	베트남 2	여	29	1	대학원
11	베트남 3	여	32	1	대학원
12	베트남 4	여	25	2	대학원
13	베트남 5	여	23	4	학부
14	베트남 6	여	24	3	학부

## | 참고문헌 |

### 1. 논문 및 단행본

- 공영태 (2005). “이공계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한국과 일본의 예비교육에 관한 관찰.” 『일본학보』. 62권, pp. 267-282.
- 김귀성·황지인 (2009). “제한 중국 유학생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대학생활 적응 간의 관계 연구.” 『학생생활연구』. 29권, pp. 1-25.
- 김규원 (1995). “국제화시대와 한국인의 대외양식.” 『성곡논총』. 26권, pp. 985-1021.
- 김미옥 (2005). “장애인의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자아탄력성 및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22권, pp. 351-381.
- 법무부 (2016).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6월호.
- 이승중 (1995). “문화이입과정·스트레스와 유학생의 신념 체계 및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익수 (2009). “중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이 학습동기 및 성취에 미치는 영향.” 『경상논총』. 2권. 1호, pp. 1-13.
- 임양준 (2012). “한국 거주 이주노동자에 대한 신문의 보도 경향과 인식 연구.” 『언론과학연구』. 12권. 4호, pp. 419-456.
- 장혁심 (2005). “서울 지역 중국인 유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정임 (2008). “사회적 지지가 이주여성의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영향.”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채영길 (2010). “미디어의 이주민 타자화 프레임 분석.” 『언론학연구』. 14권. 2호, pp. 205-241.
- 한국교육개발원 (2009). 『2009년도 국내 외국인 유학생 통계』.
- 황령희 (2002). “정보접근과 사회적 지지가 여성장애인의 역량강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황혜연 (2007). “제한 중국유학생의 대인관계 문제와 대학생활 적응 간의 관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Abe, Jin, Donna M. Talbot and Robyn J. Geelhoed (1998). “Effects of peer program on international student adjustment.”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Vol. 39, pp. 589-547.
- Berry, John W. et al. (1987). “Comparative studies of acculturative stres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Vol. 21, pp. 491-511.

- Chally, Pamela S. (1992). "Empowerment through teaching."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Vol. 31. No. 3, pp. 117-120.
- Charles, Harvey and Mac A. Stewart (1991). "Academic advising of international students." *Journal of Multicultural Counseling and Development*. Vol. 19, pp. 173-180.
- Cohen, Marcia (1998). "Perceptions of power in client/worker relationships." *Families in Society: The Journal of Contemporary Social Services*. Vol. 79. No. 4, pp. 433-442.
- Cohen, Sheldon Ed and Si Syme (1985). *Social support and health*. San Francisco: Academic Press.
- Corbin, Juliet and Anselm Strauss (2008).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s and procedures for developing grounded theory*. Los Angeles, CA: Sage.
- Diaz-Guerrero, R. (1979). "The development of coping style." *Human development*. Vol. 22. No. 5, pp. 320-331.
- Endler, Nornam S. and James D. Parker (1990). "Multidimensional assessment of coping: a critical evalu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58. No. 5, pp. 844-854.
- Furnham, Adrian and Stephen Bochner (1986). *Culture shock. Psychological reactions to unfamiliar environments*. London: Methuen.
- Glaser, Barney and Anselm Strauss (1967). *The discovery of grounded theory: Strategies of qualitative research*. New York: Aldine de Gruyter.
- Hechanova-Alampay, Regina et al. (2002). "Adjustment and strain among domestic and international student sojourners: A longitudinal study." *School Psychology International*. Vol. 23, pp. 458-475.
- Hovey, Joseph D. (2000). "Psychosocial predictors of depression among central American immigrants." *Psychological Reports*. Vol. 86, pp. 1237-1240.
- Lancee, Bram (2010). "The Economic Returns of Immigrant's Bonding and Bridging Social Capital: The Case of the Netherland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Vol. 44. No. 1, pp. 202-224.
- Lazarus, Richard S. and Susan Folkman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mpany.
- Lin, Nan, Xiaolan Ye, and Walter M. Ensel. (1999). "Social support and depressed mood: A structural analysi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 behavior*. Vol. 40, pp. 344-359.
- Mallinckrodt, Brent and Frederick T. L. Leong (1992). "International graduate students, stress, and social support."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Vol. 35, pp. 71-78.
- Marshall, Catherine and Gretchen B. Rossman (1995). *Designing qualitative research* (2rd ed.). Newbury Park, CA: Sage.
- \_\_\_\_ (1999). *Designing qualitative research* (3rd ed.). Thousand Oaks, CA: Sage.
- Misra, Ranjita and Melanee Crist and Christopher J. Burant (2003). "Relationship among life stress, social support, academic stressors, and reactions to stressors of international students in 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Journal of Stress Management*. Vol. 10, pp. 137-157.
- Olaniran, Bolanle A. (1993). "International students' network patterns and cultural stress: What really counts." *Communication Research Reports*. Vol. 10, pp. 69-83.
- Patton, Michael Q. (1980). *Qualitative evaluation methods*. Beverley Hills, CA: Sage.
- \_\_\_\_ (1987). *How to use qualitative methods in evaluation*. Newbury Park, CA: Sage.
- Pedersen, Paul B. (1991). "Counseling international students." *The Counseling Psychologist*. Vol. 19, pp. 10-58.
- Portes, Alejandro (ed.) (1995). *The Economic Sociology of Immigration*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_\_\_\_ (1998). "Social Capital: its Origins and Applications in Modern Sociology." *Annual Review of Sociology*. Vol. 24. No. 1, pp. 1-24.
- Poyrazli, Senel and Kamini Maraj Grahame (2007). "Barriers to adjustment: Needs of international students within a semi-urban campus community." *Journal of Instructional Psychology*. Vol. 34. No. 1, pp. 28-46.
- Prieto, Sally L. (1995). "International student populations and needs assessment." Sally D. Stabb, Shanette M. Harris and Joseph E. Talley (eds). *Multicultural needs assessment for college university student populations*. Illinois: Springfield, pp. 203-223.
- Ryan, Louise (2007). "Migrant Women, Social Networks and Motherhood: The Experiences of Irish Nurses in Britain." *Sociology*. Vol. 41. No. 2, pp.

295-312.

- Sanders, Jimmy, Victor nee and Scott Sernau (2002). "Asian Immigrants' Reliance on Social Ties in a Multiethnic Labor Market." *Social Forces*. Vol. 81. No. 1, pp. 282-314.
- Strauss, Anselm and Juliet Corbin (1990).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Grounded theory procedures and techniques*. Newbury Park, CA: Sage.
- Surdam, Joyce and James Collins (1984). "Adaptation of International Students: A Cause for Concern." *Journal of College Student Personnel*. Vol. 25, pp. 240-245.
- Swagler, Michelle A. and Michael V. Ellis (2003). "Crossing the distance: Adjustment of Taiwanese graduate students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 50. No. 4, pp. 420-437.
- Thomas, Kenneth W. and Betty A. Velthouse. (1990). "Cognitive elements of empowerment: An "interpretive" model of intrinsic task motivation."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 15, No. 4, pp. 666-681.
- Toyokawa, Teru and Noriko Toyokawa (2002). "Extracurricular activities and the adjustment of Asian international students: A study of Japanese stud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Vol. 26. No. 4, pp. 363-379.
- Triandis, Harry Charalambos (1994). *Culture and social behavior*. New York: McGraw-Hill.
- Van der Gaag, Martin PJ and Tom AB Snijders (2004). "Proposals of the Measurement of Individual Social Capital." H. Flap and B. Volker (eds.). *Creation and Return of Social Capital*. London: Routledge, pp. 192-218.
- Wang, Yan (2004). "Pursuing cross-cultural graduate education: A multifaceted investigation." *International Education*. Vol. 33. No. 1, pp. 52-72.
- Winkelman, Michael (1994). "Cultural shock and adaptation."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Vol. 73. No. 2, pp. 121-126.
- Yeh, Christine J. and Mayuko Inose (2003). "International students' reported English fluency, social support satisfaction, and social connectedness as predictors of acculturative stress." *Counselling Psychology Quarterly*. Vol. 16. No. 1, pp. 15-28.
- Zimmerman, Marc A. (1995). "Psychological empowerment: Issues and illustration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Vol. 23. No. 5, pp. 581-599.

## 2. 기타

Zhai, Lijuan (2002). "Studying International Students: Adjustment Issues and Social Support." Reproduced and disseminated by the Educational Resources Information Center (ERIC). ED 474481.

교육부. "국내 외국인 유학생 통계(교육기본통계 승인번호-33401)."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34](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34). (2016년 6월 8일 검색)

\_\_\_\_\_. "'유학생 유치 확대 방안' 발표(2016년 7월 7일 보도자료)." [http://www.google.co.kr/url?sa=t&rct=j&q=&esrc=s&source=web&cd=1&ved=0ahUKEwiK37DK49bOAhUENJQKHZ7CCOAQFggaMAA&url=http%3A%2F%2Fwww.index.go.kr%2Fcom%2Fcmn%2Ffms%2FFileDown.do%3Fapnd\\_file\\_id%3D1534%26apnd\\_file\\_seq%3D14&usq=AFQjCNEL1B4xHx3-abSQnLE6ymI4VpLdtg&sig2=E9beOJ2kXsmqNC\\_LivFxNA&bvm=bv.129759880,d.dGo](http://www.google.co.kr/url?sa=t&rct=j&q=&esrc=s&source=web&cd=1&ved=0ahUKEwiK37DK49bOAhUENJQKHZ7CCOAQFggaMAA&url=http%3A%2F%2Fwww.index.go.kr%2Fcom%2Fcmn%2Ffms%2FFileDown.do%3Fapnd_file_id%3D1534%26apnd_file_seq%3D14&usq=AFQjCNEL1B4xHx3-abSQnLE6ymI4VpLdtg&sig2=E9beOJ2kXsmqNC_LivFxNA&bvm=bv.129759880,d.dGo). (2017년 8월 9일 검색)

\_\_\_\_\_. "2015년 국내 외국인 유학생 현황 정보공개." <http://www.moe.go.kr/web/100088/ko/board/view.do?bbsId=350&encodeYn=N&pageSize=10&currentPage=0&boardSeq=60923&mode=view>. (2016년 6월 21일 검색)

| 논문투고일 : 2017년 05월 09일 |

| 논문심사일 : 2017년 06월 05일 |

| 게재확정일 : 2017년 06월 22일 |

ABSTRACT

Journal of Asia-Pacific Studies Vol. 24 No. 2 (2017)

**Problem Recognition and Coping Mechanism of  
Southeast Asian International Students in Korea:  
Social Support Network and Empowerment**

**Jang, Ahnlee**

(School of Advertising and Public Relations, Hongik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issues international students from Southeast Asian countries face while studying in Korea. Through 14 in-depth interviews with students from Malaysia, Indonesia and Vietnam, the study identified issues they consider problems and examined how they cope with these problems. The findings revealed that students do not experience 'honeymoon' stage when they first arrive to Korea and they chose passive resistant coping mechanism to handle their problems. Findings suggest that students become empowered as they understand their issues situated in a larger social structure, that is, as they recognize issues of racial discrimination, administrative issues within Korea's political, social, cultural structure, they became empowered and this process is related to the coping mechanism they chose upon. Moreover, findings suggest social network has positive influence on students in the process of empowerment. Furthermore, interviews revealed that positive attitude of the host country has positive influence on level of engagement (academically and socially) and attitude of the students positively.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as well as ways in which overall satisfaction of international students studying in Korea could be increased are suggested.



국내 동남아시아계 유학생들이 인식하는 문제와 대응기제 방법:  
사회적 지지 네트워크와 임파워먼트 중심으로 141

- Key words: Southeast Asian International Students, International Students, Copying Mechanism, Social Support Network, Empowerment